

Google 그룹스

GENESIS 70-73

Jeong Cheol

2001. 4. 25 오전 10:26

게시된 그룹: han.arts.music.progressive

[오찬익, oo...@hitel.net, 93.6]

GENESIS Trespass

오늘 부터는 제네시스의 앨범들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사실 그 명성에 비해 제네시스는 국내에서 그리 사랑 받는 그룹은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그러나 그들의 음악을 잘살펴보면 예스에 못지않은 연주력과 킹크림슨에 뒤지지 않는 작곡솜씨를 지니고 있음을 알수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드릴 그들의 2집은 완성도높은 연주력과 구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작품집이죠. 먼저 본작이 발표될 당시 라이업을 살펴보면 보컬에 피터 가브리엘, 기타에 안쏘니 필립스(본작 녹음중 스티브 해킷으로 교체), 키보드에 토니 뱅크스, 베이스에 마이클 러더포드, 드럼에 존 메이휴(녹음중 필 콜린즈로 교체)가 맡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로는 최강의 라인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본작에는 총 6곡이 실려있는데 수록곡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곡은 아무래도 그들의 최고의 명곡으로 손꼽히는 'White mountain'과 'Knife'이 아닐까 합니다.

잔잔한 어쿠스틱기타연주로 시작되는 'White mountain'은 중반부에 이르러 플류트연주와 장중한 드럼연주 그리고 다소 허무한 느낌마저 주는 휘파람소리에 이르기 까지 아름다운 시적인 흐름을 잃지 않는 훌륭한 곡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Knife'는 본작에서 그들의 사상이 집약된 곡으로서 자유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그들의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하니만큼 연주도 역동적이며 가브리엘의 목소리는 다소 비장하게 들리는군요. 어쨌든 뛰어난 곡임에는 분명한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역동적인 연주가 돋보이는 'Looking for someone' 담백한 피아노 연주와 플류트의 조화가 멋진 'Visions of angels' 공해문제를 다룬 'Stagnation', 그리고 또하나의 아름다운 곡인 'Dusk'등도 그들의 재능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곡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다소 외면되어온 그들의 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 갑니다.

[오찬익, oo...@hitel.net, 93.6]

GENESIS Nursery Crime

본작은 그들의 3집앨범으로써 197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전작에 비하여 연주력은 향상되었으나 구성력에서는 다소 뒤떨어지는 느낌을 주는군요. 그러나 진일보한 연주력은 그점을 보상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되는군요.

아마도 필 콜린즈와 스티브 해킷의 가입이 큰 힘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앨범 전편을 주름잡는 해킷의 어쿠스틱 일렉트릭기타는 상당히 훌륭하며 이점은 그의 솔로앨범이자 뛰어난 명반인 'Voyage of the Acolyte'에서 재현됩니다.

본작에 수록된 모든 곡들이 나름대로 훌륭한 점을 지니고 있지만 특히 주목되는 곡들은 'The musical box'와 'The

return of the giant hogweed' 그리고 잊을수없는 명곡

'The fountain of salmაცis'등이라고 할수있죠.

특히 중후한 멜로트론 웨이브로 시작되는 'The fountain of salmაცis'는 구성이라든가 연주에 있어 탁월한 곡이라고 할수있습니다.간간히 들리는 해킷의 잔잔한 어쿠스틱기타와 강력한 일렉트릭기타연주 그리고 콜린즈의 다이내믹한 드러밍이 잘조화를 이루는 한마디로 멋진 곡입니다.가사도 그리스신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곡의 중후함에 일조하고 있군요.

그리고 'The musical box'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곡으로서 구성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느낌을 줍니다.

앞부분은 잔잔한 해킷의 어쿠스틱기타와 가브리엘의 플룻연주로 시작되지만 차츰 느낌이 고조되며 이어 콜린즈의 빠른 템포의 드러밍과 해킷의 일렉트릭기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절정에 이르르게 됩니다.마치 'The fountain of salmაცis'가 전작의 'White mountain'을 연상시킨다면 이곡은 그 강력한 연주로 인하여 전작의 'Knife'를 연상시키는군요.오히려 연주파트에 있어서는 'Knife'를 능가하는 느낌을 줍니다.박진감 넘치는 대단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짜임새를 느끼게 하는곡입니다.

그리고 'The return of the giant hogweed'는 일종의 메세지송이라고 할수있는데 hogweed라는 잡초의 번식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물론 제 생각에는 좀더 비유적인 뜻이 숨어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만....

이 곡에서는 토니 बैं크스의 오건과 피아노연주,그리고 후반부의 강력한 멜로트론연주가 해킷의 일렉트릭기타와 잘 조화된 곡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아름다운 분위기의 'For absent friends','Seven stones','Harlequin'그리고 뮤지컬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던 'Harold the barrel' 등도 그들의 각별한 재능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곡들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본작도 그들의 전성기에 발표된 작품집으로서 본작을 통해 절정에 다다른 그들의 음악성을 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듯 합니다.그래서 전작과 함께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군요.

P.S.본작은 예전에 오아시스에서 라이선스로 발매된 적이 있으나 지금은 구하기 어렵고 본작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부담은 되시겠지만 중고 원판이나 CD를 구하셔야 될것같네요.하지만 그만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오찬익, oo...@hitel.net, 93.6]

GENESIS Foxtrot

본작은 그들의 통산 4집으로 그들의 가장 뛰어난 명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집이죠.

본작엔 특히 그들의 가장 대표곡으로 손꼽히는 'Supper's ready'가 수록되어 있습니다.이 곡은 총 7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내라이선스엔 웬일인지 한곡이 삭제되어 있기도 합니다.

수록곡들을 살펴보면

- A.....1. Watcher of the sky
- 2. Time table
- 3. Get'em out by Friday
- 4. Can-utility and the coastliners
- B.....1. Horizon's
- 2. Supper's ready
 - a)Lovers' leap
 - b)The guaranteed eternal sanctuary man
 - c)Ikhnaton and Itsacon and their band of merry man
 - d)Willow farm

f)Apocalypse in 9/8

g)As sure as eggs is eggs

(국내 라이선스음반에 명기되어 있는 순서는 이 순서와는 다르니 유의 하세요)

첫곡인 'Watcher of the sky'는 박진감있는 연주와 짜임새있는 구성으로인하여 국내에선 명곡으로 인정받는 곡입니다.해킷의 기타연주는 더욱 향상된듯한 느낌을 주는군요.

그리고 둘째곡인 'Time table'은 'Selling England by the pound'에 수록되어 있는 'Fifth of fifth'와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생 각됩니다.시종일관 아름다운 피아노연주와 실로폰(?)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시적감상에 젖게하는 곡이죠.가사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권력의 허망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곡인 'Get'em out by Friday'는 전작인 'Nursery cryme'의 'Harold the barrel'과 맥을 잇는 곡으로 여전히 풍자적이고 오페라적인 작법을 느낄수있는 곡입니다.흡사 Queen이나 Klaatu를 연상시키는 부분 들이 있어 흥미롭군요.

이어지는 'Can-utility and the coastline'역시 멜로트론연주와 현악파트 의 조화와 뒷부분의 기타와 드럼의 합주가 돋보이는 역시 놓칠수없는 뛰어난 곡입니다.

앞면의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이 격찬을 받는 이유는 뒷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Supper's ready'의 멋진 전주가 되는 해킷의 어쿠스틱소품 'Horizon's' 이어 본작의 백미인 7부작이 시작되죠.

서정적인 'Lover's leap', 장중한 'The guaranteed eternal sanctuary man' 역동적인 'Ikhnaton and itsacon and their band of merry men' (그리고 제생각입니다만 이곡 다음에 해설지에 나타나있지 않은 곡이 있는데 가사의 노골적인 비판성으로 미루어 볼때 아마도 이곡이 삭제된 제7의 곡이 아닐까합니다.)

해학적인 'Willow farm',그리고 이곡의 하일라이트 부분인 'Apocalypse in 9/8' 과 'As sure as eggs is eggs'에서 앞선 테마들이 되풀이되며 대단원의 막은 내립니다.

이 곡은 음악적으로도 그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만 가사를 보더라도 그들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음을 감지할수있죠.

이미 앞선 앨범들에서도 언급되어 왔지만 권력을 소유한 기득권층의 횡포와 사회적으로 행해지는 전쟁과 같은 비인간적인 작태들에 대항하여 인간본연의 모습을 찾고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앞서 연재되었던 E L P가 내면지향적이고 신비적인 접근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면 제네시스는 보다 외향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있겠죠.이런점은 흥미롭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본작은 그들의 작업중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되고 여러분께도 필청을 권해드리고 싶군요.기왕이면 가사도 한번쯤 음미해 보시길 바라며 'Supper's ready'의 끝부분을 인용하고 이만 물러 갈까 합니다...

Can't you feel our souls ignite
Shedding ever changing colours in the darkness of the fading night

Like the river joins the ocean as the germ in a seed grows
We have finally been freed to get back home

There's an angel standing in the sun
And he's crying with a loud voice
"this is the supper of the mighty one"
Lord of Lord's
King of King
Has returned to lead his children home
To take them to the new Jerusalem

[오찬익, oo...@hitel.net, 93.6]

GENESIS Selling England by the pound

본작은 그들의 6번째앨범으로 Genesis Live 에 이어 발표되었습니다. 본작을 들어 보면 우선 그들의 사운드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Foxtrot에서 정점을 이루었던 실험성이라든가 강렬함은 많이 퇴색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대신 좀더 아름답고 세련된 사운드를 담고 있다는 점이 이 앨범을 그들의 대표작으로 인식하게끔만든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수록곡을 살펴보면 먼저 눈에 띄는 곡은 그들의 대표곡중 하나인

"Dancing with the moonlit night"입니다.

이곡은 비교적 전작들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곡으로 처음에는 피아노와 어쿠스틱기타의 아름다운 합주로 진행되지만 중반부에선 강렬한 키보드와 기타의 연주로 급변하게 됩니다.역시 강약을 절묘하게 배분하는 그들 특유의 작곡솜씨가 빛을 발하는 곡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I know what I like"은 다소 팝적인 곡으로 변모한 그들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본작에서 발견되는 또하나의 명곡 "Firth of fifth"이 그뒤를 따르고 있죠. 피터의 아름다운 플룻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가사에 나타나 있듯이 왠지 허무감마저드는 다소 염세적인 곡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여러면에서 전작에 담긴 "Time Table"을 연상시키는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곡은 이색적으로 필 콜린즈의 보컬이 담긴 "More fool me"입니다.

이곡은 나쁘게 말하면 제네시스의 몰락을 예고한 곡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집니다.음악자체도 다소 평범한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뒷면에 담긴곡들도 대체로 많이 유연해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첫곡인 "The battle of epping forest"는 연주길이에 있어서는 대곡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전의 대곡들이 구성에 있어서 짜임새가 있었던 반면 다소 산만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즉 핵심부분이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군요.

다음곡인 연주곡 "After the ordeal" 은 변모한 그들의 사운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곡으로서 세련되고 부드러운 연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마치 경음악을 듣는 것같은 정갈함이 느껴지는군요.

아마도 이런점때문에 본작은 프로그레시브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의 두곡인 "The cinema show" 와 "Aisle of plenty"역시 아름답고 조용한 가운데서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혹 초기의 제네시스를 아끼시는 분들이라면 본작에 실망하셨을 지도 모르겠지만 본작도 나름대로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용한 한밤중에 들어보면 더욱 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이상으로 제네시스앨범 Review를 마칠까 합니다. 이후 제네시스는 몇장의 앨범을 더 발매하지만 별로 권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 제네시스의 이후 앨범들을 들어 보시려는 분들은 대형 레코드가게의 CD 가판대를 잘뒤져 보시면 발견하실수 있을겁니다.

야후! 메일등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후! 메일등을 이용하시려면, 야후!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http://docs.yahoo.com/info/terms/>